

한유 · 이고 『논어필해』 연구*

김주옥 · 이강재**

-
1. 들어가며
 2. 고주를 대하는 『논어필해』의 태도
 - 1) 고주의 계승
 - 2) 고주 부정 및 재해석
 3. 『논어필해』의 경학적 특징
 - 1) 경문 및 경문 순서 교감
 - 2) 공자 제자들에 대한 평가
 - 3) “성”과 “도”의 이해
 - 4) 『중용』과 『맹자』의 중시
 4. 나오며
-

■ 국문요약

한유와 이고가 주해한 『논어필해』는 경문을 의심하고 고주를 반박하는 『논어』 주석서 중의 하나이다. 이는 경학사적 맥락에서 송대 신유학의 서막을 열은 중요한 저서이다. 또한 『논어필해』는 『논어』 연구의 흐름에서 당나라에서 송나라에 넘어온 중요한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중요성과 비해 국내에

* 이 논문은 2019년 2월 19일 한국경학회에서 초고 형식으로 발표된 바 있으며, 2019년 11월 16일 중국 양저우대학(揚州大學)이 주최한 “『論語』詮釋與東亞文明國際學術研討會”에서 「論語筆解의創新及其影響」라는 제목의 중국어로 된 초고 형식으로 발표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여러 의견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 김주옥: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수료, 제1저자 / E-mail: kimjuock@snu.ac.kr
이강재: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E-mail: likangqi@snu.ac.kr

『논어필해』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논어필해』의 원문 분석을 통해 『논어』 경문을 해석하는 방식과 그 경학적 의미를 설명하였다.

주제어 : 『논어』, 『논어필해』, 한유, 이고, 신유학

1. 들어가며

본고는 中唐시기 韓愈와 李翱에 의해 편찬된 『論語筆解』에 대한 연구이다. 위진남북조 시기에 발전기를 겪은 『논어』학은 당나라 때에 들어와 쇠퇴기로 접어들었다. 이는 당나라 시기의 『논어』 연구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전대보다 못하다는 점에 잘 드러난다.¹⁾ 朱彝尊의 『經義考』와 陳夢雷의 『古今圖書集成』의 隋唐 史志 목록에는, 이 시기의 『논어』 연구 저서로 13부가 제시되어 있다.²⁾ 그런데 그 목록을 보면 대부분 생소하고 잘 알려진 것이 거의 없으며, 지금까지 전해지며 후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는 陸德明의 『論語音義』와 한유·이고의 『논어필해』만을 언급할 수 있을 듯하다. 한유의 『논어주』 10권 역시 목록에만 있을 뿐 현재 전해지지 않으므로 당대가 『논어』학의 퇴조기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평가이다.

한유·이고의 『논어필해』에 대해 일찍이 皮錫瑞가 『經學歷史』에서 “한유와 이고의 『논어필해』는 모두 짧은 편장으로 이루어 큰 뜻이 없다.”³⁾라고 평한 바가 있다. 또한 劉師培가 “수당 이래 『논어』학이 쇠미하

1) 唐明貴(2009), 『論語學史』, 233면.

2) 賈公彥의 『論語疏』 15권, 陸德明의 『論語音義』, 王勃의 『次論語』 10권, 韓愈의 『論語注』 10권, 侯喜의 『論語問』, 張籍의 『論語注辨』 2권, 한유와 李翱의 『論語筆解』 2권, 馬總의 『論語樞要』 10권, 李涪의 『論語刊誤』 2권, 李暉의 『論語注』, 無名の 『論語雜義』 13권, 『論語別義』 10권, 陳蛻의 『論語品類』 7권.

3) “皆寥寥短篇, 無關閎旨.” 皮錫瑞, 周子同(2004), 『經學歷史』, 152면.

였다. 오직 당대의 한유와 이고의 『논어필해』가 고문의 뜻을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고, 글자를 다르게 풀이하여 그래서 북송의 경을 해석하는 시작을 열었다.”⁴⁾라고 평한 적이 있다. 피석서는 『논어필해』를 큰 가치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유사배는 『논어필해』를 북송 경학의 시작을 열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다. 이처럼 『논어필해』는 경학사에서 좋고 나쁨의 평가가 갈린다. 『논어필해』를 둘러싼 논쟁은, 『논어필해』의 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논어필해』의 진위 문제에 대한 논쟁도 포함된다. 이는 또한 『논어필해』가 지금까지도 많이 중시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논어필해』가 위작이라는 주장은, 송대 사람邵博의 『邵氏聞見後錄』에 보인다. 그는 “張籍이 「祭韓愈詩」에서 말하기를 ‘노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지금 자필이 보이지 않는다.’ 한유에게 일찍이 『論語傳』이 있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지금 전해진 바에 ‘宰予晝寢’의 ‘晝’자를 ‘晝’자로 보고, ‘子在齊聞韶,三月不知肉味’의 ‘三月’을 ‘音’자로 보고, ‘浴乎沂’의 ‘浴’자를 ‘浴’자로 보는데, 정말로 천루하다.”⁵⁾라고 하였다. 소박이 장적의 「제한유시」를 인용하여 한유가 『논어』를 주해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지금 전한 『논어필해』의 내용이 천루하여 한유가 집필하였다고 논하기가 어려워 『논어필해』가 한유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 의심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 오히려 한유가 『논어』를 주해하였는데 오직 전해지지 않았을 뿐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유가 「答侯生問論語書」에서 “내가 일찍이 『논어』를 주해하였는데, 감히 그의 뜻을 지나치게 구하지

4) “隋唐以降, 『論語』學式微. 惟唐韓愈李翱作『論語筆解』, 附會穿鑿, 緣詞生訓, 遂開北宋說經之先河.” 劉師培(2008), 『劉師培講經學』, 27면.

5) “張籍祭韓退之詩云, ‘魯論未訖註, 手迹今微茫.’ 是退之嘗有論語傳, 未成了. 今世所傳, 如‘宰予晝寢’, 以‘晝’作‘畫’字, ‘子在齊聞韶, 三月不知肉味’, 以‘三月’作‘音’字, ‘浴乎沂’, 以‘浴’作‘浴’字, 至爲淺陋……” 邵博撰, 劉德權·李劍雄點校(1997), 『邵氏聞見後錄』, 33면.

않았으며 성인의 취지를 얻어 그것에 합치된다면, 이것이 후학자들을 믿게 만들 수 있을 뿐이다.”⁶⁾ 라고 하여 스스로 자기가 『논어』를 주해하였다고 말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대 이후의 여러 서목에서도 한유가 주해한 『논어』를 찾아볼 수 있으며,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추론해 보면, 아마도 한유가 논어를 주해하였을 때 먼저 시작부분에 기록한 것이 있고 이고가 또한 서로 만나 토론한 내용을 그 사이에 붙여 기록한 것인 듯하다. 책이 완성된 뒤 후대 사람이 그의 초고를 얻어 주해에 실리지 않은 부분을 모아서 별도로 두 권으로 만들어 전하였다 ……”⁷⁾

이 때문에 필자는 한유와 『논어필해』의 관련성에 대해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따르고자 한다. 즉, 한유가 『논어』에 대해 주해를 하였는데, 그 당시에 완전한 『논어』 주석서로 전해지지 않았고, 이고 혹은 후대 사람들이 한유와 이고의 초고 자필을 정리하여 다시 편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논어필해』는 국내에서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았거니와 중국에서도 연구가 활발한 편이 아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 글에서 『논어필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석서이며 전체 경학사적 맥락에서의 가치는 어떠한지를 『논어필해』의 내용 분석을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본고는 1991년 中華書局에서 출판된 叢書集成初編의 『논어필해』를 저본으로 삼았음을 밝혀둔다.

6) “愈昔註解其書，而不敢過求其意，取聖人之旨而合之，則是足以信後生耳。”『韓昌黎文集校注·遺文』，韓愈 撰，馬其昶 校注，馬茂元 整理(1986)，728면.

7) “以意推之，疑愈註論語時，或先於簡端又所記錄，翹亦相見討論，附書其間，迨成書之後，後人得其稿本，採註中所未載者，別錄爲二卷行之……”『四庫全書總目』，永瑤等 撰(1965).

2. 고주를 대하는 『논어필해』의 태도

『논어필해』의 체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논어필해』에서는 먼저 한유와 이고가 해석하고자 하는 경문을 선정하고 그 다음은 고주의 내용을 인용한다. 이어서 한유가 경문에 대해 자기의 해석을 하고 그 다음은 이고가 상세한 증거를 논하거나 혹은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 한유의 견해를 논증하는 방식으로 경문의 해석을 풀이한다. 한유와 이고의 말은 “韓曰”, “李曰”로 되어있다.

『논어필해』에서 한유가 단독으로 풀이하는 문장은 13구절, 이고가 단독으로 풀이하는 문장은 2구절, 한유 다음 이고가 이어서 풀이하는 문장은 65구절, “한유-이고-한유”식으로 번갈아 풀이하는 문장은 9구절, 그 외에 “한유-이고-한유-이고”식으로 풀이하는 문장은 1구절, “한유-이고-한유-이고-한유”식으로 풀이하는 문장은 2구절, 합쳐서 총 92구절이다.

경문의 채택 상황을 살펴보면, 「학이」편 2장, 「위정」편 5장, 「팔일」편 3장, 「이인」편 4장, 「공야장」편 4장, 「옹야」편 4장, 「술이」편 4장, 「태백」편 3장, 「자한」편 6장, 「향당」편 3장, 「선진」편 5장, 「안연」편 3장, 「자로」편 3장, 「헌문」편 6장, 「위령공」편 6장, 「계씨」편 2장, 「양화」편 9장, 「미자」편 3장, 「자장」편 2장, 「요왈」편 3장으로, 총 80장이다. 채택한 경문 중에 한 장을 여러 구절로 나눠서 해석한 것도 있고, 또한 두 장을 합쳐서 설명하는 것도 있다.

아래에서는 주로 예문 분석을 통해 『논어필해』와 何晏의 『論語集解』 및 이에 대한 소의 성격을 갖는 邢昺의 『論語註疏』을 비교하여, 고주를 대하는 『논어필해』의 인식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이 부분에서 주로 고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고주의 계승, 고주

의 부정 및 발명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1) 고주의 계승

한유와 이고의 『논어필해』에서 고주를 동의하고 또한 그의 해석을 계승하여, 고주를 바탕으로 자기의 뜻을 펼치는 부분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⁸⁾

(1) [경문] 子曰, 君子而不仁者有矣夫, 未有小人而仁者也. [공자: 군자이면서 완비되지 못한 자는 있겠지만, 소인이면서 완비된 자는 있지 않다.⁹⁾](「헌문」)

[고주] 孔曰, 雖君子猶未能備. [공안국: 비록 군자라 하더라도 오히려 완비할 수 없다.]

한유: ‘仁’은 마땅히 ‘備’로 써야 하는데,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어찌 군자이면서 인하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 이미 소인이라고 일컬었는데 또한 어찌 인을 구하겠는가? 내 생각으로 군자가 재능과 덕행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는 있겠지만 소인이 완비함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있지 않다. [韓曰, 仁當爲備, 字之誤也. 豈有君子而不仁者乎? 既稱小人, 又豈求其仁耶? 吾謂君子才行或不備者, 有矣. 小人求備則未之有也.]

이고: 공안국이 주석에서 ‘備’자로 말한 것은 ‘완비되지 않음’을 풀이한 것임이 분명하다. 경문에서 ‘備’를 ‘仁’으로 쓴 것은 정말 글자의 잘못이다. 한 번 그 문자를 잘못 쓰니 점점 뜻이 어긋났다. [李曰, 孔註云備, 是解其不備, 明矣. 正文備作仁, 誠字誤. 一失其文, 寢乖其義.]

8) 『논어필해』의 인용에 있어서, 『논어』 경문과 고주는 한문으로 된 원문을 앞에 두고 그에 대한 번역을 두며, 한유와 이고의 주장은 우리말 번역을 앞에 두기로 한다. 이는 본고의 독자가 경문과 고주에는 비교적 익숙하지만 한유와 이고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생소할 수 있다고 예상하여 이렇게 한 것이다.

9) 여기에 제시된 『논어』 경문에 대한 우리말 번역은 『논어필해』의 견해에 근거하여 번역하였으므로, 일반적인 번역이나 필자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이하도 마찬가지이다.

(1)은 한유가 공안국이 주에서 “군자라 하더라도 오히려 완비될 수는 없다”라고 풀이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더 나아가 경문에 있는 ‘仁’자를 ‘備’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고 역시 한유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여 “완비되지 않음을 풀이한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설명한다. 이는 『논어필해』가 고주의 견해를 계승하여 더 한층 풀어준 예에 속한다.

2) 고주 부정 및 재해석

『논어필해』에서는 『논어주소』를 인용하였는데, 주로 孔安國, 包咸, 馬融, 鄭玄, 王弼, 周生烈的 주석을 반박하였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 [경문] 子曰, 論篤是與, 君子者乎, 色莊者乎. [공자: 토론을 극진히 한 것은 이것인가? 군자답다. 얼굴색이 장중하다.] (「선진」)

[고주] 孔曰, 論篤是口無擇言, 君子是身無擇行, 色莊者不惡而嚴. [공안국: ‘論篤’은 입으로 가릴만한 말이 없는 것을 이른다. ‘君子’는 몸에 가릴만한 비루한 행실이 없는 것을 이른다. ‘色莊’은 미워하지 않지만 위엄이 있는 것이다.]

한유: 공안국이 뜻을 잘못 해석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論’이란 ‘토론’이고, ‘篤’은 ‘극진히’ 함이며, ‘是’는 ‘이것’이란 뜻이다. 공자의 도를 극진히 토론하여, 이로서 자장이 단지 군자의 얼굴색과 신중함을 배우면 바로 군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韓曰, 孔失其義, 吾謂論者討論也. 篤, 極也. 是, 此也. 論極此聖人之道, 因戒子張但學君子容色莊謹, 即可以及乎君子矣.]

이고: ‘與’는 의문사이고 ‘乎’는 말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 구절에서 ‘이를 논독하였는가’라고 말한 것은, 자장이 이러한 선인의 경지를 지극히 하지 못한 것을 말한 것이다. 아래 구절에서 장중함을 말한 것은 자장이 당당함의 잘못을 규제하고 군자의 용모로 돌아갈 것을 경계하려는 것이다. 공안국이 이 세 가지를 모두 선인이라고 주석하였는데 이

는 공자의 본의를 잃어버린 것이다. [李曰, 與, 疑辭也. 乎, 語終也. 上句云論篤此與者, 言子張未極此善人也. 下句言莊者, 欲戒子張檢堂堂之過, 約歸於君子容貌而已. 孔註云三者爲善人, 殊失聖人之本意.]

(2)는 공안국이 ‘論篤’을 “입으로 가릴만한 (잘못된) 말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한유는 ‘篤’을 ‘극진히’로 보고, ‘是’를 ‘이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고는 ‘與’를 의문사라고 보았기에 『논어필해』에서 “論篤是與”는 “토론을 극진히 한 것이 이것인가?”라고 해석한다. 이어서 이고는 ‘乎’는 ‘말을 종결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에 “君子者乎, 色莊者乎”는 “군자답다. 얼굴색이 장중하다”로 해석하게 된다. 이는 공안국의 주석과 다르다. 뿐만 아니라 한유는 “공안국이 뜻을 잘못 해석하였다.”라고 하였고 이고는 “공안국이 이 세 가지를 모두 선인이라고 주석하였는데 이는 공자의 본의를 심히 잃은 것이다.”라고 하여 공안국의 주를 부정하면서 자신의 해석을 기준으로 풀이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한유가 “뜻을 잘못 해석하였다.”로 공안국의 주석을 부정한다. 『논어필해』에서 “간략하다.[略矣]”, “아니다.[非也]”, “그의 요지를 잃었다.[失其旨]” 등의 말을 써서 고주를 부정하는 곳은 총 53군데이다. 이는 『논어필해』 92구절¹⁰⁾ 중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상과 같이 『논어필해』는 경문을 풀어주는 방식에 있어서 고주를 계승하는 부분과 부정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긍정하는 것보다는 부정하는 것이 더 많은데, 이는 고주를 긍정하려면 별도의 글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정의 뜻이 있을 때가 많은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고주의 뜻을 긍정할 경우도 거기에 자신

10) 『논어필해』에서 『논어』를 총 80장을 채택하였다. 그 중 개별 장을 2구절 혹은 3구절로 나눠서 해석하는 장이 있어 총 92구절이다.

의 견해를 더하여 추가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에만 한정된다. 이 때문에 『논어필해』가 고주를 동의하든 부정을 하든 그것은 한유와 이고가 경문을 자기의 뜻으로 재해석하려는 경향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논어필해』의 경학적 특징

1) 경문 및 경문 순서 교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논어필해』는 고주를 부정하고 거기에 자기의 뜻으로 경문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경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경문 문자와 경문 순서를 교감하는 내용에서도 보인다. 한유와 이고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의 견해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는 또한 문헌학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이며, 이를 통해 『논어』의 색다른 견해들을 볼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3) [경문] 點爾何如。至童子六七人，浴乎沂，風乎舞雩，詠而歸。〔증석아 너는 어떠하냐?〕부터 “어린 동자 예닐곱 명과 함께 기수를 따라 무 근처에서 바람을 쐬고 노닐다가 노래하면서 돌아오고 싶습니다.”까지] (「선진」)

한유: ‘浴’은 ‘泔’으로 써야 하는데,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주나라의 3월은 하나라의 정월인데, 어찌 목욕할 수가 있겠는가? [韓曰，浴當爲泔字，字之誤也。周三月夏之正月，安有浴之理哉。]

(3)은 한유가 경문에서 ‘목욕하다’는 뜻의 ‘浴’을 ‘~따라가다’는 뜻의

‘訟’으로 써야 하며 이는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라 하였다. 이는 차가운 날씨 속에서 기수에서 목욕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기수를 따라가다”라는 뜻으로 볼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 구절은 그러한 주장을 경문의 문자를 바꾸어 써서 해결하고자 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경문의 문자를 교감하려는 시도라고 할 것이다. 또 다음 예문을 보자.

(4) [경문] 子畏於匡，顏淵後。子曰，吾以女爲死矣。曰，子在，回何敢死。 [공자가 광 지방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안연이 뒤처져서 왔다. 공자가 “나는 네가 앞에 있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자, 안회가 “선생님께서 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앞서 가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선진」)

[고주] 包曰，言夫子在，已無所敢死也。 [포함: 부자께서 살아계시니, 자기가 감히 죽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한유: ‘死’는 ‘先’으로 써야만 하는데,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위의 문장에서 “안연이 뒤처져 오다”라고 하였으니, 아래의 문장에서 “제가 어찌 감히 앞서 가겠습니까?”라고 한 것이며, 그 뜻이 죽는다고 할만한 이유가 없음이 저절로 명확해진다. [韓曰，死當爲先，字之誤也。上文云顏淵後，下文云回何敢先。其義自明無死理也。]

이고: 안회의 덕행은 아성의 재질이자 감히 죽을 용사가 아님이 분명하다. 고문의 탈오인데 포함의 주에서 그대로 따라 잘못되었다. 한유의 해석이 올바르게 잘 되었다. [李曰，以回德行亞聖之才，明非敢死之士也。古文脫誤，包註從而訛舛。退之辯得其正。]

(4)는 한유가 ‘死’를 ‘先’으로 바꾸어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독창적인 견해이다. 글자를 바꿔 포함의 주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논어필해』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경문의 글을 고친 내용은 근거가 제시된 엄밀한 교감이기보다 자기의 견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경문을 바꾸려고 하는 경향으로 보이며, 또한 문맥을 위주로 한 추측

의 느낌도 많이 든다. 뿐만 아니라 한유와 이고가 『논어주소』를 반박하기 위해 복잡하게 풀이하는 모습도 보이며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구절도 매우 많다. 이 때문에 후대에 『논어필해』의 일부 내용이 계승되고는 있지만¹¹⁾ 대부분의 구절은 계승되지 않은 채 논의가 되지 않게 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한유와 이고의 독창적인 견해는, 당시의 『논어』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자하는 노력의 결과이며, 고주를 부정하는 태도는 또한 후대 疑經정신을 개창한 선례라 할 수 있다. 다음은 경문 순서를 교감한 예이다.

(5) [경문] 子曰, 由, 知德者鮮矣. [공자: 자로야, 덕을 아는 사람이 드물구나.] (『위령공』)

한유: 이 구절은 착간이다. 마땅히 ‘子路慍見’ 아래에 있어야 타당하다. [韓曰, 此一句, 是簡編脫漏, 當在子路慍見下文一段爲得.]

이고: ‘남(濫)’은 ‘은(慍)’으로 써야 하는데,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공자는 자로가 화가 난 모습으로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곤궁하면 화낸다’라고 말하였으니, 앞의 굳건함이 자로와 같은 사람이 또한 드물다. [李曰, 濫當爲慍, 字之誤也. 仲尼因由慍見, 故云窮斯慍焉. 則知之固如由者亦鮮矣.]

(5)는 한유가 이 구절이 마땅히 “子路慍見”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착간으로 보고 있다. “子路慍見”은 같은 『위령공』의 앞부분에 나오는 구절로, 이 구절은 공자 일행이 주유천하 중에 陳나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제자들이 병들어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11) 『이인』편에서 “子遊曰, 事君數.” 구절에 대해 한유가 ‘數’자에 대해 빈도를 나타내는 뜻으로 보고 있다. 程子が 이를 이어 받아 “자주함”으로 해석하고, 주희도 『논어집주』에서 정자의 설을 따라 “빈도”로 해석하였다. 이것이 한유의 견해가 후대에 계승된 예에 속한다.

자로가 화가 나서 공자를 뵈자 공자가 “君子固窮，小人窮斯濫矣.”라고 말해준 내용을 담고 있다. 이고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뒤에 나오는 ‘窮斯濫’의 ‘濫’ 역시 ‘懼’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공자는 자로가 화가 난 모습으로 자기를 만나려고 왔기 때문에 곤궁하면 화를 낸다.”라고 말한 것이 된다. 또 한유의 견해에 따라 문장의 순서를 바로 잡는다면, 모두가 곡식이 떨어진 가운데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삶의 굳건함이 자로와 같은 사람이 드물다.”라고 자로를 칭찬하였는데 그 가운데에 자로가 당시의 상황을 불만스럽게 생각하여 공자에게 불만을 토른한 것이 된다. 이는 문장의 순서를 바로 잡아 전체 해석의 통일성을 기해보려는 노력을 보인 예에 속한다.

장절을 통합하자는 주장을 보여주는 다음 예문을 보자.

(6) [경문] 子曰，色厲而內荏，譬諸小人，其猶穿鑿之盜也與。子曰，鄉原，德之賊也。 [공자: 외견상으로 위엄이 있지만 내면이 유약한 것은, 소인들에 비유하자면 벽을 뚫고 담장을 넘는 도둑과 같은 것이다. 공자: 유약함을 행하는 사람은, 덕을 해치는 도둑과 같다.] (「양화」)

한유: ‘原’은 ‘柔’와 비슷한 잘못 쓰인 글자이다. 고문에 나오는 ‘盜’자가 ‘原’과 ‘柔’자의 뜻을 따른 것이다. 후대 사람들이 마침내 ‘內柔’를 오해하여 ‘鄉原’으로 쓰였다. 명확하게 할만하다. [韓曰，原類柔，字之誤也。古文盜從¹²⁾原柔。後人遂誤內柔爲鄉原，足以明矣。]

이고: 뜻은 위 문장의 ‘內荏’과 연관이 된다. 옛날의 ‘嵐’자가 또한 ‘柔’자와 비슷하다. 아마도 공자가 ‘內柔’를 거듭 말하는 것은, 거짓으로 얼 굴색의 위엄만을 갖추면 이는 덕을 해치는 도둑이기 때문이다. [李曰，義連上文內荏，古嵐字亦類柔字。蓋仲尼重言內柔者，詐爲色厲，則是德之賊也。]

12) 필자가 저본으로 삼은 판본에서 ‘從’자가 우측 부분이 네 개의 ‘人’자로 되어있다. 필자가 從으로 교정하였다.

(6)의 『논어필해』의 견해에 의하면 「양화」편에 나오는 위의 두 ‘子曰’은 합하여 한 장이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內荏’과 ‘鄉原’이 같은 뜻이므로 두 장은 결국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 장으로 묶어서 해석해야 한다. 또한 ‘內荏’은 ‘내면이 유약하다’이며, ‘鄉原’의 ‘原’이 ‘柔’자의 오자로 아래 문장을 “내면이 유약한 것을 거둬 말한 것이다”라는 뜻으로 설명하였다. 그래서 이는 하나의 맥락에 있는 말이므로 한 장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경문의 순서를 교정하는 부분도 볼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7) [경문] 子曰, 可與共學, 未可與適道, 可與適道, 未可與立, 可與立, 未可與權. [공자: 함께 배울 수는 있지만 함께 도를 실천할 수는 없고, 함께 도를 실천할 수는 있지만 함께 지킬 수는 없으며, 함께 지킬 수는 있지만 함께 권도를 행할 수는 없다.] (「자한」)

[고주] 孔曰, 雖能之道, 未必能有所立, 雖有所立, 未必能權量輕重. [공안국: 비록 도를 실천할 수 있지만 꼭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비록 지킬 수 있지만 꼭 경중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유: 공안국의 주석은 뜻을 잘못 풀었다. 배우고 도에 나아가는 것이 어찌 지킬 수 없겠는가? ‘權’은 ‘經權(경도와 권도)’을 말할 때의 ‘權’이지 어찌 ‘輕重’을 따지다는 뜻의 ‘權’이겠는가? 내 생각에는 본문을 옮겨 쓰면서 거꾸로 뒤집어졌다. 마땅히 “함께 배울 수는 있지만 함께 지킬 수는 없고, 함께 도에 나아갈 수는 있지만 함께 권도를 행할 수는 없다.”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논리가 통하게 된다. [韓曰, 孔註猶失其義. 夫學而之道者, 豈不能立耶. 權者, 經權之權, 豈輕重之權耶. 吾謂正文傳寫錯倒, 當云可與共學, 未可與立, 可與適道, 未可與權. 如此則理通矣.]

이고: 권도를 쓰는 것은 성인의 지극한 변통이어서, 도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아래 문장에서 “唐棣之華, 偏其反而. [자두 꽃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공자가 권도를 깊

이 생각하는 것이다. 『공양전』에서 “經과 어긋나지만 道에는 합치되는 것이 권이다.”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 이다. [李曰, 權之爲用, 聖人之至變也, 非深於道者, 莫能及焉. 下文云, 唐棣之華, 偏其反而, 此仲尼思權之深也. 公羊云, 反經合道, 謂之權. 此其義也.]

(7)은 먼저 공안국이 ‘權’을 ‘경중을 헤아리다’는 뜻이라고 설명한 것을 부정하고 ‘權’을 ‘經權’의 ‘權’으로 봐야하며, 또 원래 경문은 옮겨 쓸 때 거꾸로 되어 바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순서는 마땅히 “可與共學, 未可與立, 可與適道, 未可與權.”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고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權’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공양전』의 내용을 인용하여 한유의 주장을 보충 설명하였다. 그런데 한유의 주장은 경문의 순서를 바꾸어야 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은 채 전체적인 해석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견해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감의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경문의 삭제론을 주장한 다음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자.

(8) [경문] 子曰, 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 [공자: 군자는 널리 옛 문장을 배우되 예절로써 자신을 단속할 수 있다면,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다.] (「안연」)

한유: 죽간의 편찬이 중복되어 잘못되었다. 「용야」편에서 이미 “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可以弗畔矣夫”라는 구절이 있다. 지금 이 구절은 삭제해도 된다. [韓曰, 簡編重錯, 雍也篇中, 已有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可以弗畔矣夫. 今削去此段可也.]

(8)은 「용야」에 거의 같은 문장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 역시 한유가 문장이나 문자에 대해 교감을 진행한

예에 속한다.

주웨이정이 『주여동경학사논저선집』에서 “송대 철학의 형성은 의경에서 시작한다.”¹³⁾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앞서 보았던 바와 같이 한유와 이고가 『논어필해』에서 고주를 부정하면서 “소가 주를 부수지 않는다”는 “疏不破註”의 전통을 깨었는데, 이는 또한 송대 신유학 형성의 중요한 시작이며, 『논어』학 연구에서도 큰 가치를 갖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자 제자들에 대한 평가

한유와 이고는 공자의 제자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이전의 학자들과는 다른 독창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9) [경문] 子曰, 回也其庶乎, 屢空, 賜不受命, 而貨殖焉, 億則屢中.
[공자: 안회는 거의 도를 터득하였지만 자주 무아지경에 이르렀다. 자공은 성명의 의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임기응변에 능하여 예측을 하면 자주 들어맞다. (「선진」)

한유: 일설에 ‘屢’는 ‘매번’의 뜻과 같으며, ‘空’은 “마음을 비워 일체의 잡념을 없애는 뜻이다.”라는 뜻과 같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본문의 뜻에 가깝다. “부유하여 마음을 비우지 못하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는 잘못이다. 내가 생각건대, 안회가 앉아서 무아지경에 이르는 것은 바로 그 ‘空’이라는 것인데, 자공은 안회가 매양 무아지경에 이르러 능히 그 무아지경을 적절히 행했던 것만은 못하다. ‘貨’는 ‘資’자로 써야 하며, ‘殖’은 ‘權’자로 써야 하는데,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자공은 임기응변에 자질이 있으며 성명의 의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것이 아마도 자공이 안회의 다음이 되는 이유임을 밝힌 것이다. [韓曰, 一說屢猶每也.]

13) 「朱熹」, 朱維錚 編(1996), 『周子同經學史論選集』, 117면.

空猶虛中也, 此近之矣. 謂富不虛心, 此說非也. 吾謂回則坐忘遺照, 是其空也. 賜未若回每空而能中其空也. 貨當爲資, 殖當爲權, 字之誤也. 子貢資於權變, 未受性命之理, 此蓋明賜之所以亞回也.]

(9)는 일반적으로 자공의 특징이라고 설명하는 ‘貨殖’이 재산증식에 능동했다는 말이 아니다. 즉, ‘貨’는 자질이 있다는 ‘資’자가 잘못 쓰인 것이고 ‘殖’은 권도를 뜻하는 ‘權’이 잘못 쓰인 것이어서, ‘貨殖’은 ‘資權’ 즉 ‘임기응변에 능하다’라고 풀이된다. 이를 통해 한유는 자공이 권도를 잘 행하는 자질이 있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10) [경문] 宰予晝寢, 子曰, 朽木不可雕也. 糞土之牆, 不可朽也. 於予與何誅. [재여가 침실을 꾸미자 공자가 이렇게 말하였다.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고 더러운 흙으로 만든 담은 흠손질을 할 수 없다. 재여에 대해 무엇을 꾸짖겠는가?”] (「공야장」)

한유: ‘晝’는 ‘畫’로 써야 하는데,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재여는 공자의 제자 가운데 덕행·언어·정사·문학 네 분야 뛰어난 열 명의 제자에 속하는데, 어찌 낮잠을 잤다는 꾸지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설사 혹 편안히 누워 쉬었다 하더라도 또한 심히 꾸짖을만한 것이 아니다. 또한 ‘於予’는 확실히 재여를 말한 것이 분명하다. 아래 문장에서 ‘始吾’, ‘今吾’를 말할 때는¹⁴⁾ 공자가 스스로 칭한 것이다. [韓曰, 晝當爲畫, 字之誤也. 宰予四科十哲, 安得有晝寢之責乎? 假或偃息, 亦未足深誅. 又曰於予, 顯是言宰予也. 下文云, 始吾今吾者, 卽是仲尼自謂也.]

(10)은 孔門十哲의 言語科에 속한 재여에 관한 내용이다. 한유가 경문에 보이는 ‘晝’를 ‘畫’의 잘못으로 보고 재여가 낮잠을 잔 것이 아니라,

14) 이 구절의 바로 뒤이어 나오는 子曰, “始吾於人也, 聽其言而信其行, 今吾於人也, 聽其言而觀其行. 於予與改是.”에 보이는 ‘始吾’, ‘今吾’를 가리킨다.

침실을 꾸미는 것으로 보고 공자가 비판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유의 해석에 의하면, 재여는 공자의 뛰어난 제자에 속하며, 낮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꾸지람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재여가 예에 어긋나게 침실을 꾸미는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한다. 낮잠을 잔 것보다는 훨씬 큰 잘못을 저지른 제자로서 재여를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구절에서 공자가 재여를 꾸짖은 이유에 대해 후대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논쟁이 있는데, 그 중 ‘晝寢’을 ‘晝寢’으로 해석한 것은 한유에 의해 시작된 주장이다.

다음의 자장에 대한 평가를 보자.

(11) [경문] 子張問善人之道。子曰，不踐跡，亦不入於室。[자장이 선인의 도리에 대해 묻자, 공자는 “흔적 자취를 밟을 수 없고, 또한 성인의 마음까지 이르지 못한다.”라 하였다.] (「선진」)

한유: 아마도 공자는 자장을 훈계하여 선인의 자취와 흔적을 따라서 마음의 깊은 곳에까지 이를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성인의 마음은 오묘하고 은미하여 불만한 형체가 없고 밟을만한 흔적이 없어 자장이 능히 이를 바가 아니다. [韓曰，蓋仲尼誨子張，言善人不可循跡而至於心室也。聖人心室，惟奧惟微，無形可觀，無跡可踐，非子張所能至爾。]

이고: 성인은 마음이 있고 자취도 있으며, 형체가 있는 것도 있고 형체가 없는 것도 있다. 당당하기만 한 자장이 진실로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李曰，聖人有心有跡，有造形，有無形，堂堂乎子張，誠未至此。]

(11)에서 한유와 이고는 자장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 한유에 의하면, 자장이 몰었던 ‘善人’은 마음이 오묘하고 깊어서 자장이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고 또한 여기에 동의하여 “당당하기만 한 자장이 진실로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평가한다. 한유

와 이고는 기본적으로 공문십철에 속하는 제자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는 있지만, 그 외의 다른 제자에 대해 높지 않은 평가를 볼 수 있다.

또한 『논어필해』에서 孔門四科의 순서를 정하였는데, 다음 예문을 보자.

(12) [경문] 德行, 顏淵, 閔子騫, 冉伯牛, 仲弓. 言語, 宰我, 子貢. 政事, 冉有, 季路. 文學, 子遊, 子夏. [공자의 제자 중 덕행에 관해서는 안연·민자건·염백우·중궁이 뛰어나며, 말을 잘하는 것으로는 재아와 자공이 뛰어나며, 정치에 관해서는 염유와 계로가 뛰어나고, 문헌에 관해서는 자유와 자하가 뛰어나다.] (「선진」)

한유: 덕행과가 최고인 것은 『역경』에서 이른 “묵묵히 기억하는 것은 덕행에 달려 있다”에서 알 수 있다. 아마도 말에 의지하지 않은 것 때문인 듯하다. 언어과가 그 다음이 되는 것은 『역경』에서 말한 “헤아린 뒤에 말하고, 의논한 뒤에 움직이며, 헤아리고 의논하여 그 변화를 이룬다.”라는 말이니, 이것으로는 표준이 될 수는 없으나 정치와 법에 얽매인 것은 아니다. 정사과가 그 다음으로 이른바 “비록 노숙한 사람이 없으나 그래도 옛날 법은 남아 있다.”라는 것이며, 이는 문사를 일삼은 것이 아님을 말한다. 문학과가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은 『예기』에 이른바 “경문에 구두를 띠고, 그 심지의 취향을 분별하며, 학문을 논하고 좋은 벗을 선택하며, 학문의 성과를 크고 작게 이룬다.”는 말이니, 이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韓曰, 德行科最高者, 易所謂默而識之, 故存乎德行, 蓋不假乎言也. 言語科次之者, 易所謂擬之而後言, 議之而後動, 擬議以成其變化. 不可爲典要, 此則非政法所拘焉. 政事科次之者, 所謂雖無老成人, 尙有典刑, 言非事文辭而已. 文學科爲下者, 記所謂離經辯誌, 論學取友, 小成大成, 自下而上升者也.]

이고: 무릇 공자의 도를 배우는 자들이 처음은 문헌부터 배운다. 문헌이 통달한 후에 人事를 바르게 할 수 있고, 인사를 명확히 한 후에 스스로 말을 잘 할 수 있으며, 말을 잊으면 자신의 행동으로 조용히 알게 되니, 이를 덕행이라 명한다. 이런 사람이 성인의 오묘함이다. 네 가지 전공은 순서가 있는 것 같지만 주석에서는 그 까닭을 밝히지 않았다. [李曰, 凡學聖人之道, 始於文, 文通而後正人事, 人事明而後自得於

言, 言忘矣而後默識已之所行, 是名德行, 斯人聖人之奧也. 四科如有序, 但註釋不明所以然.]

(12)에서는 먼저 한유는 경문에서 공문사과를 덕행, 언어, 정사, 문학의 순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저 단순한 나열이 아니며 제자들의 경지의 높고 낮은 순서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울러 왜 그러한 순서를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고 역시 한유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주석에서 그 순서를 밝히지 않은 점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공문사과의 순서를 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에 의해 제기된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3) “성”과 “도”의 이해

필자가 앞에서 언급한 봐와 같이 『논어필해』에서 한유와 이고가 경문을 의심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경문을 해석한다. 이는 한나라의 경문을 해석하는 방식과 다르며 또한 송대 신유학의 개창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과연 『논어필해』가 신유학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다음 예문과 같이 살펴보자.

(13) [경문] 子貢曰, 夫子之文章, 可得而聞也. 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 [자공: 공자 선생님께서 문헌에 대해 가르쳐주신 것은 들을 수 있었지만, 선생님께서 본성이나 하늘의 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들을 수 없었다.] (「공야장」)

[고주] 孔曰, 性者, 人所受以生也, 天道者, 元亨利新之道深微, 故不可得而聞也. [공안국:性は 사람이 타고난 것이고 천도는 우주의 정기가 두루 미쳐 만물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도이니 깊고 오묘하다. 그래서 들을 수 없었다는 말이다.]

한유: 내가 생각건대, 본성과 천도는 같은 하나의 뜻이다. 만약 두 가지 뜻으로 풀이한다면, 사람이 본성으로 받아서 태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들을 수 없었겠는가? [韓曰, 吾謂性與天道一義也. 若解二義, 則人受以生, 何者不可得聞乎哉.]

이고: 천명을 性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늘이 또한 본성이 있다. 봄은 인, 여름은 예, 가을은 의, 겨울은 지라는 것이 이것이다. 사람이 본성을 따르는 것은 오상의 도가 이것이다. 아마도 문인들이 단지 공자의 문장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공자의 본성과 천도를 합한다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 자공의 심오함이 아니라면, 어찌 하늘과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었겠는가? [李曰, 天命之謂性, 是天人相與一也. 天亦有性, 春仁夏禮秋義冬智是也. 人之率性, 五常之道是也. 蓋門人只知仲尼文章, 而尠克知仲尼之性與天道合也. 非子貢之深蘊, 其知天人之性乎.]

(13)은 한유가 먼저 ‘성’과 ‘천도’는 하나이며 나뉘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의 「原性」에 말한 “본성이란 태어남과 함께 생겨나는 것이다.”¹⁵⁾와 같은 맥락의 뜻이다. 이고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성과 천도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자공만은 그것이 하나임을 알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하면서 자공이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강조한다. 자공을 높이 평가하는 『논어필해』의 기본 입장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논어필해』는 경문을 해석할 때 의리에 관한 내용을 탐구하고 설명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것 또한 신유학에서 의리를 중시하는 선례라 할 수 있다.

4) 『중용』과 『맹자』의 중시

신유학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四書의 완성이다. 일찍이 『논

15) “性也者, 與生俱生也.” 『韓昌黎文集校注·遺文』 앞의 책 20면.

어필해』에서 사서 중 『중용』과 『맹자』의 내용을 자주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는 이전 시기 주석에서 많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알아보자.

(14) [경문] 子曰,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공자: 군자는 천하의 일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다고 주장함도 없고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함에도 없으며, 의로 더불어 비하느니라.] (『이인』)

한유: ‘無適’은 가함이 없는 것이다. ‘無莫’은 불가함이 없는 것이니 오직 의가 있는 사람과 서로 친할 뿐이다. [韓曰, 無適, 無可也. 無莫, 無不可也, 惟有義者與相親比爾.]

이고: 맹자가 “오직 의가 있는 바이다.”라고 하였는데, 그 취지가 동일하다. [李曰, 孟子曰, 惟義所在, 其旨同.]

(15) [경문] 子曰, 吾五十而知天命. [공자: 쉰 살이 되어서는 천명을 알게 되었다.] (『위정』)

한유: 천명이 심오하고 오묘하여 사물 발전의 기원과 결과를 연구하는 측면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다. 공자가 쉰 살이 되어서 『역경』을 배워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명에 이르렀기에 ‘지천명’이라고 하였다. [韓曰, 天命深微至蹟, 非原始要終一端而已. 仲尼五十學易, 窮理盡性, 以至於命, 故曰知天命.]

이고: 天命을 性이라고 한다. 『역경』은 이치와 본성을 다루는 책이다. 선유들은 『역경』을 전하는 것을 잃었으나 오직 맹자가 공자의 깊이 있는 업적을 이어 받았다. 그래서 『맹자·진심』에서 “그의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그의 본성을 알 수 있고, 그의 본성을 아는 사람은 하늘에 대하여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는 천명이 지극하다는 설이다. 여러 학파 중에 그 심오함에 이르는 자가 드물다. [李曰, 天命之謂性. 易者, 理性之書也. 先儒失其傳, 惟孟軻得仲尼之蘊. 故盡心章云, 盡其心所以知性, 知性所以知天. 此天命極至之說. 諸子罕造其微.]

(16) [경문] 子曰, 恭而無禮則勞, 慎而無禮則憇, 勇而無禮則亂, 直而無禮則絞. [공자: 공손하지만 예가 없으면 수고롭게 되고, 신중하지만 예가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며, 용감하지만 예가 없으면 난을 일으키게 되고, 정직하지만 예가 없으면 확고하게 된다.] (『태백』)

한유: 왕필이 주석에서 “예로써 절제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한 예는 중용을 절제하는 것이다. 도달하지 않으면 수고롭고 두려워하게 되며, 지나치면 난을 일으키고 확고하게 된다. ‘교(絞)’는 확고함이다. [韓曰, 王註云, 不以禮節之. 吾謂禮者, 制中者也. 不及則爲勞爲憇, 過則爲亂爲絞. 絞, 確也.]

이고: 앞편에서 “예의 사용은 화를 제일 귀하게 여기며 예로 절제하지 않으면 또한 행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는 말이 나와서 모두 절제에 딱 맞는 것을 화라고 말한 것이며, 지금 공손함은 반드시 일어나 예까지 이른다 고 말한다. 너무 지나치면 안 되어 대체로 그의 중용을 절제하는 뜻을 취할 뿐이다. [李曰, 上篇云, 禮之用, 和爲貴, 不以禮節之, 亦不可行. 此言發而皆中節之謂和也, 今言恭必企而進禮, 不可太過, 大抵取其制中而已乎.]

(14-16)은 『논어필해』에서 『맹자』와 『중용』을 인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서의 완성은 송대 신유학의 중요한 특징이다. 『맹자』와 『중용』이 사서에 속하기 전에 크게 중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논어필해』에서 『맹자』와 『중용』의 내용을 인용하여 『논어』를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이 보인다. 사서 중에 『대학』은 송대 이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이며, 『맹자』는 성을 다루고 있고, 『논어』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논하고 있으며, 『중용』은 사람과 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서는 사상적인 측면에서 서로 일관성이 있으며, 경문 간의 해석도 서로 융통성이 있게 이해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또한 신유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다. 『논어필해』에서 『논어』를 해석하면서 『맹자』와 『중용』을 자주 인용한 것은 송대 신유학에 계승되어 그

단초를 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나오며

이상에서 필자는 한유와 이고가 주해한 『논어필해』는 경학사적 흐름에서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논어필해』에 채택한 경문과 경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 먼저 『논어』 경문을 해석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 부분에서 필자는 『논어필해』에서 고주를 동의하고 고주의 해석을 계승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저자만의 뜻을 더 펼쳐 해석한 것과, 고주를 부정하고 경문의 내용을 재해석한 것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필자는 『논어필해』의 경학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경문 및 경문 순서의 교감을 통해 『논어필해』에서 고주를 반박하고 ‘疏不破注’의 전통을 깨고자 하는 태도는 후대 의경정신을 개창한 선례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어서 한유와 이고가 『논어필해』에서 공자 제자들에 대한 평가를 정리해보았다. 한유와 이고가 공문사과의 차서를 매겼는데 이는 당대 이후 새로운 견해이다. 다음으로 필자는 『논어필해』에서 ‘성’과 ‘도’의 이해와 『맹자』와 『중용』을 인용한 부분의 분석을 통해 이는 사서의 내용으로 『논어』를 해석하는 경향으로 신유학의 형성의 중요한 단초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논어필해』는 『논어』 연구사에서 시기인 한학에서 송학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저서이며, 『논어』 연구의 퇴조기에 연구의 맥을 이어서 후대 송대 신유학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닦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책은 『논어』학 연구에서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 본고에서 논의한 내용은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논어필해』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국

내에서 더욱 진일보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唐) 韓愈 李翱, 『論語筆解』, 中華書局, 1991.
- (唐) 韓愈 撰, 馬其昶 校注, 馬茂元 整理, 『韓昌黎文集校注』, 上海古籍出版社, 1986.
- (宋) 邵博 撰, 劉德權·李劍雄 點校, 『邵氏聞見後錄』, 中華書局, 1997.
- (清) 皮錫瑞 著, 周子同 註, 『經學歷史』, 中華書局, 2004.
- (清) 永瑤 等 撰, 『四庫全書總目』, 中華書局, 1965.
- 程方平(1991), 『隋唐五代的儒學: 前理學教育思想研究』, 雲南教育出版社.
- 朱維錚 編(1996), 『周子同經學史論選集』, 上海人民出版社.
- 劉師培(2008), 『劉師培講經學』, 鳳凰出版社.
- 唐明貴(2009), 『論語學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戴維(2011), 『論語研究史』, 岳麓書社.
- 查金萍(2007), 「淺談『論語筆解』」, 船山學刊 第3期 110~112면.
- 查屏球(1995), 「韓愈『論語筆解』眞僞考」, 文獻 第2期 62~72면.
- 彭文桂(2014), 「韓愈的經學思想研究—以『論語筆解』爲中心」, 湘潭大學碩士學位論文.
- 한유 저, 오수형 역해(2010), 『한유산문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A Study of *The Analects with Explanatory Notes*

Kim, Ju-ock / Lee, Kang Jae*

HanYu韓愈 and LiAo李翱's *The Analects with Explanatory Notes* 論語筆解 is one of the *The Analects of Confucius's* commentaries that doubt the scriptures and refute it. This is an important book that opened the beginning of the Song Dynasty Neo-Confucianism 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In addition, *The Analects with Explanatory Notes* can be said to be an important transition period from Tang to Song Dynasty in the flow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research. However compared to its importance, there are not many studies in Korea.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clarify the method of interpreting the thesis and its classics meaning through the text analysis of *The Analects with Explanatory Notes*.

Key Words

HanYu, LiAo, *The Analects with Explanatory Notes*, Neo-Confucianism

논문접수일: 2019.12.31, 심사완료일: 2020.1.20, 게재확정일: 2020.2.3

* Master of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 kimjuock@snu.ac.kr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 likangqi@snu.ac.kr

